

##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 - 19세기 콜레라의 유행과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

오성준\*

- I. 서론
- II. 19세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그 기억
- III. <변강쇠가>에 형상화된 질병의 기억
- IV.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염병 체험의 기억이 형상화된 작품으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에 주목하여, 19세기 조선에 유행했던 콜레라의 실상 위에서 <변강쇠가>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19세기 조선의 콜레라 대유행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전염병의 시작과 전파 속도 및 범위, 증상과 대상을 중심으로 전염병 체험이 집단의 기억 속에 각인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평안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19세기 조선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수많은 시체를 남겼던 사실, 그리고 상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었던 하층 민중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방불케 하는 공포와 불안의 기억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 체험의 기억이 <변강쇠가>에 형상화된 흔적을 살펴보았다. <변강쇠가>의 전반부에서는 평안도라는 작중 공간 설정, 접촉으로 인한 대량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염병의 기억이 작품 속에 형상화된 모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습을 확인했다. 작품의 중반부에서는 강쇠의 죽음을 둘러싸고 전염병이 남긴 고통의 증상 및 빠른 전파 속도와 관련된 기억, 그리고 ‘가난한 자의 역병’이라는 쓸쓸한 현실에 대한 기억이 형상화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설정, 땅과 사람에게 붙어버린 시체의 모습, 이를 갈아 없애는 결말에 콜레라로 인해 시체가 범람했던 19세기의 혼한 풍경이 투영되어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전대미문의 전염병 충격에 대한 반응이 <변강쇠가>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공동체 경계 안에 있는 존재들이 공론을 통해 옹여와 강쇠를 타자화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담장이 더욱 높고 견고해지는 모습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반응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변강쇠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처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마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 등장하는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콜레라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빚어낸 인간성의 비극을 <변강쇠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19세기의 콜레라와 21세기의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반응이 보여주는 ‘인간성의 수준’은 2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아졌는가? 여전히 차별과 적대,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변강쇠가>가 던지는 이상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변강쇠가>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대유행이 남긴 기억과 이에 대한 반응을 작품 전체에서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기억 위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서 ‘질병 문학’을 논할 때,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염병 서사’로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전염병, 19세기, 콜레라, 기억, 불안, 공포, 변강쇠가, 차별, 배제, 담장, 질병 문학, 전염병 서사

## 1. 서론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여러 위험 요소들 가운데서도 전통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질병, 특히 전염병<sup>1)</sup>이 아니었을까 싶다. 전통사회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갑자기 침입하여 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가와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초래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거나 사라지는 미지의 존재였다.<sup>2)</sup>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존재가 유발하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전통사회 사람들은 살아갔다.

역사적으로 근대에는 스페인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바 있고, 오늘날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pandemic)<sup>3)</sup>으로 규정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는 그 실제 이상으로 상상적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이 있었을 뿐, 그 원인 및 감염경로, 대응방식 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전통사회 사람들에게 전염병 체험이 주는 불안과 공포가 오늘날보다 더 지대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부터 전염병의 유행이 나타나며,

1) 전염병이란 원충, 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하여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감염병 중 전파력이 높아 어떤 인구 집단에서 예견되는 빈도 이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전근대에는 전염을 통해 집단적으로 발병한다는 점에서 ‘돌림병’이라고도 불렀고, 환자를 모질게도 고통스럽게 했기에 ‘모진 병’이라고 불렀다.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권복규, 『朝鮮前期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한국사론』 제4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참조.

2) 전염병은 종류에 따라 시차를 두고 변종을 만들어내며 활성기와 소강기를 반복하기도 했고, 그 사회의 풍토에 정착하여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정착하기도 했다. 천연두와 홍역이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소아병으로 정착한 바 있고, 18세기 전반의 조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윌리엄 H. 맥닐,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139면; 강상순, 『조선시대의 역병 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 제46집, 일본연구소, 2015, 71~72면 참조.

3) 감염병의 위험도를 1~6단계로 나누었을 때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 1918년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 1968년 100만 이상 사망한 ‘홍콩 독감’ 정도가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1948년 이래로 팬데믹이 선언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세 차례에 불과하다.

조선전기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전염병이 유행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sup>4)</sup> 17세기에 이후에는 기근이나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전염병이 더욱 크게 유행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남기도 했다. 19세기 조선에서는 두창(痘瘡)과 홍역(紅疫), 티푸스계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특히 1821년에는 외부로부터 콜레라가 유입되어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며 근 한 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콜레라는 아시아를 여러 차례 강타하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후 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아메리카까지 전파되었다.<sup>5)</sup> 오늘날의 기준으로 팬데믹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했던 콜레라 체험은 19세기 조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염병은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나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과 같이 우발적인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 체험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전염병과 같이 일상의 테두리를 넘어선 강렬한 체험은 당시를 살아낸 인간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고, 각각의 성격과 지향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전염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이 문학을 통해 형상화되어 온 여러 사례가 세계 문학사를 통해 확인된다. 14세기에 중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쓴 흑사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은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의 『데카메론』에 형상화되어 있고, 까뮈(Albert Camus, 1913~1960)는 『페스트』를 통해 심각한 전염병이 휩쓰는 가운데 고립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상섭의 『만세전』이나 전영택의 『생명의 봄』이 당시 14만 명이나 사망한 1918년 스페인독감을 소재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19세기 조선 사회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인 콜레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고, 그 기억은 어떤 모습과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형상화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전염병 체험과 기억을

4) 조선전기 전염병 유행에 관해서는 권복규, 앞의 논문, 53~90면 참조.

5) 19세기의 전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해서는 조광,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83~235면;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989, 53~86면; 이규근, 『조선 후기 질병사 연구: 조선왕조실록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6집, 국사편찬위원회, 2001, 1~42면을 참고하였다.

답은 작품 중에서도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1812~1884)에 의해 정리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변강쇠가>에는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sup>6)</sup>이라는 말로 1821년 조선 사회에 처음으로 유행했던 콜레라가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 체험과 기억의 흔적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사설을 정리한 신재효가 1884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변강쇠가>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던 19세기 조선 사회의 중심에 놓여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동안 <변강쇠가>는 우리 고전 문학사에서 특이한 색채를 지닌 작품<sup>8)</sup>으로 여겨져,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의 지평에 올라 활발하게 탐색되어 왔다.<sup>9)</sup> 유랑민의 생활상과 유랑상을 통해 조선 후기 유랑민의 비극적 삶이 형상화된 작품으로 <변강쇠가>를 파악한 서증문의 본격적인 연구<sup>10)</sup> 이후로, 당대의 구체적 역사 조건과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sup>11)</sup> 그러나 19세기 조선 사람들의 삶을 송두

6)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통에 험악(險惡)하게 죽은 송장 내 손으로 다 쳤으니, 그 같은 선 송장은 외손의 아들이니 샅을 먼저 결단(決斷)하오 폐. 당동당.” (신재효, 『변강쇠가(暹斗木本)』, 강헌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권8, 보성문화사, 1978, 583면. 이하 작품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시하도록 한다.)

7) 조동일은 판소리에 대해 “현실 경험을 손상시키지 않고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개방된 갈래”라고 했다. 물론 현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작품에 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판소리 사설이 현실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조동일의 견해는 19세기 전염병 유행의 경험 위에 <변강쇠가>를 놓고 그 기억이 어떻게 작품에 형상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181면 참조.)

8) 이병기, 『國文學概論』, 일지사, 1961, 172면.

9) <변강쇠가>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오성준,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6~13을 참고하였다.

10) 서증문, 「<변강쇠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11)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경신, 「무속제의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정병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김중철, 「19세기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회, 1986;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강진옥, 「<변강쇠가> 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3집, 이화어문학회, 1993; 정출현, 「판소리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61집, 국어문학회, 2016 등이 있다.

리째 바뀌놓았던 전염병 체험을 제외하고 당대의 구체적 역사 조건과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 의료를 밝히는 과정에서 <변강쇠가>를 자세히 살피며 강쇠가 당하는 장승 동티가 당시 유행했던 괴질(怪疾)이라는 전염병의 증세와 유사하다는 신동원의 논의<sup>12)</sup>는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장승 동티가 난 강쇠에게 갖가지 병이 물러오는 것이 ‘괴질’로 대표되는 전염병을 연상하게 하며, 유랑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변강쇠가>에 나타남을 지적한 이주영의 논의<sup>13)</sup>는 주목을 요한다. 이후 이주영은 <변강쇠가>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통해 19세기 콜레라로 대표되는 질병 체험의 문학적 형상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간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변강쇠가>의 경우 작품 전체에서 전염병 체험과 기억의 흔적이 감지되는 만큼, 작품 전체를 19세기 콜레라 대유행이라는 구체적 역사 조건과 맥락 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개인 혹은 집단적 체험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때, 현실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기억은 과거의 경험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치환과 변형,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 현실 자체나 그에 대한 감각적인 체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현실을 조심스럽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 조선 사회 콜레라 유행의 실상과 기억을 살피고, 전대미문의 체험에 대한 기억과 반응이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에 남긴 흔적을 더듬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염병과 한 사회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산출되는 기억과 반응 위에 <변강쇠가>를 올려놓고 살핌으로써,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반응을 조망하고 질병 문학사의 관점에서 이 작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신동원,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제6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307~332면.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에 재수록)

13)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제58집, 민족어문학회, 2008, 5~33면.

14) 이주영, 『19세기 疫病 체험의 문학적 형상』, 『동학어문학』 제55집, 동학어문학회, 2010, 39~68면.

## II. 19세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그 기억

<변강쇠가>에 나타난 전염병 체험의 기억과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조선에 처음으로 유입된 콜레라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으며 당시 사회에 어떤 충격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전염병 체험이 집단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기억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따라서 여기서는 콜레라의 시작, 속도, 범위, 증상, 그리고 대상 등을 중심으로 콜레라의 대유행과 관련한 19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이 전염병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콜레라는 인도 벵갈 지방의 풍토병으로 1800년 이전에는 인도대륙과 그 주변 지역에 한정해서 전파되었다. 1817년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의 중심지인 캘커타에 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1주일 사이에 5,000명의 영국 군인들이 콜레라로 사망했다. 이후 영국의 선박과 군대는 이곳으로부터 다른 지역까지 병원균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콜레라는 1820년부터 1822년에 걸쳐 한쪽은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로, 다른 한쪽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및 일본으로 퍼져나갔다.<sup>16)</sup> 최초의 콜레라 대유행은 6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조선에 유입된 콜레라 역시 당시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이 있었다.<sup>17)</sup>

조선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처음에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북경에서 산해관을 거쳐 요동의 바닷가 지역을 따라 의주를 지나 평안도와 황해도로

15)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것은 억압되며, 또 어떤 것은 폐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억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당시 기억 주체에게 의미가 있는 경우이거나, 억압과 폐기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체험은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기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피하고 싶으나 부지불식간에 쇄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억은 회상의 시점에서 치환, 변형, 왜곡, 경도(傾倒)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억이 과거 현실 그 자체 혹은 그에 대한 감각적 체험과는 다른 것임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A. 아스만,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33~35면 참고.

16) 콜레라의 유행과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윌리엄 H. 맥닐, 허정 역, 앞의 책, 287~292면; 아노 카렌, 권복규 역,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북스, 2001, 201~204면 참고.

17) 신동원, 앞의 논문, 58면.

들어왔다.<sup>18)</sup> 1821년 8월 13일(음력), 평안감사 김이교로부터 평양성 내외에서 괴질(怪疾)이 발생하기 시작해 열흘 사이에 1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옴으로써,<sup>19)</sup> 콜레라의 습격이 조선 사회의 수면 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안감사의 보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조선 정부는 콜레라가 황해도 지역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sup>20)</sup> 평양에서 최초 보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콜레라는 서울에까지 침투했으며,<sup>21)</sup> 이후 경기도와 충청도뿐만 아니라 영남 지방까지 퍼짐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sup>22)</sup>

『순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경산일기』 등을 통해 1821년 당시 조선에 콜레라가 전파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콜레라 전파 과정
1821. 7. 28.	평안감사 김이교, 역병이 돌고 있음을 인지함.
1821. 8. 14.	황해도 지역에 역병이 돌기 시작함.
1821. 8. 15.	도성 내에 역병이 돌기 시작함.
1821. 8. 26.	화성과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 역병이 유행함.
1821. 9. 08.	충청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함.
1821. 9. 21.	영남 지방까지 역병이 퍼져나감.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콜레라는 1821년 음력 7월에 평안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인해 그 기세가 수그러지는 음력 9월까지 조선에서 크게 유행했다. 평양에서 도성까지 보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18) 조선에서 최초로 발생한 콜레라는 1821년과 18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유행했다. 전년도의 콜레라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었다면, 이듬해 발생한 콜레라는 전년 유행에서 감염된 보균자의 체내에 유지되었던 병원균이 이듬해에 유행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社, 1963, 63~64면; 김정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콜레라 유행의 특성』, 『韓國疫學會誌』 제13권 제2호, 한국역학회, 1991, 11면 참조.

19) 『순조실록』 순조 21년(1821년) 8월 13일.

20) “二十日, 自前月二十八日, 平壤中城人, 吐瀉轉筋, 頃刻不起. 當日遍及內城, 旬日間, 死亡爲數千. 道臣狀聞, 聞順安肅川安州等地, 又熾盛.” 정원용, 허경진·구지현 역, 『국역 경산일록』 2, 보고서, 2009, 40면.

21) 『순조실록』 순조 21년(1821년) 8월 15일.

22) “卽見慶尙監司李在秀狀啓則以爲, 無名怪疾, 不時輪行, 間多死亡, 而嶺下列邑, 漸有熾蔓之慮.” 『승정원일기』 순조 21년(1821년) 9월 21일.



도성에도 역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발생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콜레라의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822년 음력 4월에서 8월까지의 대유행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콜레라의 전파 속도에 대해 『순조실록』에서는 1821년에는 “집집마다 전염되어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유행되었다.”<sup>23)</sup>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822년에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염되어 마치 불이 들판을 태우듯이”<sup>24)</sup>라고 기록하였다. 심노승(沈魯崇, 1762~1837) 역시 “바람처럼 일어나 조수처럼 퍼져 항우(項羽)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랐다.”<sup>25)</sup>라며 당시 콜레라의 전염 속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전염병이 전국 곳곳에 퍼졌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상상 이상이었다.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관들이 올린 장계의 내용과 당대 콜레라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1820년대에 콜레라가 조선 사회에 미친 피해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순조실록』에서는 재상 이상의 사망자가 10여 명이었으며 서울과 지방의 사망자를 모두 합하면 수십 만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6)</sup>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1821년 콜레라 유행 당시 평양부 사망자가 수만이고 도성의 사망자가 13만이었으며, 1822년까지 하면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라고 적고 있다.<sup>27)</sup> 또한 당시 영변 부사로 재직하면서 질병 창궐 시 도내 위유사(慰諭使) 임무를 수행한 정원용 역시 평안도의 사망자 수를 2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sup>28)</sup>

이후 1858년 콜레라 유행 때에는 50만, 1860년대의 콜레라 유행 때는 40만,

23) 『순조실록』 순조 21년 8월 21일.

24) 『순조실록』 순조 22년(1822년) 10월 19일.

25) 심노승, 안대회·김보성 역, 『자저실기(自著實記) -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의 일상』, 휴머니스트, 2014, 309~312면.

26) “이 병은 집집마다 전염되어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유행되었는데, 옛날의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었다. 이때 경제(卿宰) 이상 사망자가 10여 명이었고, 여느 관료나 백성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서울과 지방의 사망자까지 합하면 모두 수십 만여 명이나 되었다.” 『순조실록』 순조 21년 8월 21일.

27) “1821년 백로 추분부터 10일 안에 관서 평양부 사망자가 수만이고, 왕도 오부 사망자가 13만이다. 상강 이후로 점점 유행이 심해지다 전국팔도에서 유행하여 1822년에도 그치지 않는다.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다.” 정약용, 『애민 6조』, 『국역 목민심서』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259면.

28) “(九月)二十五日, 聞自監營修啓, 諸邑死亡, 合爲二萬二千餘人, 可驚驚.” 정원용, 허경진·구지현 역, 앞의 책, 45면.

1895년에는 30만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니, 19세기는 가히 콜레라로 대표되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 전염병은 유행의 범위 측면에서 전국적이었던 특징을 보여준다. 외국과의 교역이 빈번하였던 관서지방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온 콜레라는 수많은 유랑민을 낳았다. 전염병의 발생은 마을 사람 들에게 언제 전염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전염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떠나 유랑의 길에 올랐다. 유랑민들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팔도에 전염병을 실어 날랐다. 이처럼 평안도에서 시작된 전염병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조선 팔도를 유린했던 것이다.

일단 콜레라에 전염되면 증상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20 리터 이상의 체액이 몸에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필수적인 나트륨까지도 몸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장은 텅텅 비고 온몸이 탈수상태에 빠져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다. 설사는 심한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피부에는 주름이 잡히고 색깔은 자줏빛을 띤 검푸른 색으로 변했다. 동시에 움푹 파인 눈 주위와 수척해진 얼굴, 심하게 쉰 목소리가 동반되었다. 증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몸 밖으로 나온 배설물에는 엄청난 양의 콜레라균이 동반되었으며, 방출된 콜레라균은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다시 주변으로 전염되었다.<sup>29)</sup>

이와 같은 콜레라의 증상과 고통은 살아남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통해 공동체 내부에 기억되었다. 당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발생했던 콜레라의 전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고통의 기억 역시 전국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1821년에 처음 유행한 이후로 조선에서 열 차례 이상의 유행이 있었다는 사실<sup>30)</sup>은, 이러한 고통의 기억이 일회성이 아니라 잇을 만하면 다시 소환될 정도로 지속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질병이 주는 고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기억이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기

29) 콜레라의 증상에 대해서는 존 케이조, 황상익 외 역,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나』, 메디치 미디어, 2012, 51면; 아노 카렌, 권복규 역, 앞의 책, 202면;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디스,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217면을 참조.

30) 신동원, 앞의 논문, 1989, 58~60면 참조.

억을 남기는 것은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 남아 있는 많은 시체가 지 않았을까 싶다.

미국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도성 안팎에는 잡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떠들아다니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염됩니다**. 이들은 모두 먹을 것과 짐이 없고 의탁할 곳도 없는 무리로서 거리에서 헤매다가 많이 죽고 있으니, 듣고 보기에 매우 참혹합니다. (…)**살아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서는 묻지도 못하여 그냥 시체나 나뒹굴고 쌓이게 놔두고 있으니** 이게 어찌 인애로운 정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sup>31)</sup>

『순조실록』에서는 1822년의 콜레라 유행에 대해 기록하며 유랑민의 전염 문제와 시체의 범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전염병으로 발생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체를 치우거나 제대로 묻는 일도 힘든 일이었다. 이전에 전쟁으로 인한 시체를 처리에도 큰 비용이 소모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전쟁보다 많은 사망자를 낸 콜레라로 인한 시체 처리가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 성안 으스스한 곳에 시체가 쌓여 있어도 성 밖으로 옮기지 못했고, 성밖에 시체들이 언덕을 이루어도 흙을 덮어줄 수도 없었다. 심지어 매장꾼들을 뽑아놓아도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시체를 끌고 가서 대충 구덩이에 버리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온 집안이 몰살해서 시체를 보살피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sup>32)</sup>

그런데 인도 땅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이역만리인 한반도 조선에서 어떻게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을까? 이는 아마도 19세기의 기후적 특징<sup>33)</sup>에서 기인한 가뭄과 장마, 홍수 등 당시 조선에서

31) 『순조실록』, 순조 22년(1822년) 4월 28일. 밑줄은 인용자.

32) 이욱, 『전쟁보다 무서운 돌림병』, 『내일을 여는 역사』 제7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72면.

33) 당시 기후 조건과 관련하여 19세기에는 기온저하를 의미하는 냉량지수가 17세기 전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특히 19세기 초반의 조선은 유럽·중국·일본 등지와 같이 다우기였다고 한다. 순조 15년부터 24년까지 거의 매년 홍수의 피해가 있을 정도였다.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 한국기후의 문화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384면 참고.

횡행했던 여러 자연재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자연재해와 전염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준호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발생한 전염병은 강수량, 수재, 혹은 가뭄과 홍수로 인한 기근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up>34)</sup>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급감,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양 부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식수의 오염은 물을 통해 병원균이 전염되는 수인성(水因性) 질병인 콜레라가 19세기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sup>35)</sup>

콜레라의 전국적 유행과 관련해서는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 역시 병원균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sup>36)</sup> 무엇보다 콜레라 확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우물이었다. 당시 조선의 민간에서는 공동으로 우물을 사용했는데, 우물은 주로 마을 중심부 통행로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행로 주변에는 오물이 흘러 들어가기 쉬운 복개되지 않은 도랑이 있었고, 민가 곳곳에서 버려진 오물이 우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집 안으로 운반한 후, 항아리와 같은 커다란 용기에 채워 넣고 온 가족이 작은 바가지로 퍼서 사용했다.<sup>37)</sup> 이처럼 오수에 취약한 우물과 밀폐된 곳에 보관되었다가 온 가족이 쓰는 물 역시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전염병은 인간의 면역력, 즉 영양 상태 및 그에 따른 면역 체계에 따라 발병 확률이나 극복 확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양질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강한 면역 체계를 지닐 수 있는 계층은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유랑민들이 먼저 감염되었다는 기록은 면역력과 관련하여 콜레라의 대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콜레라가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희생자

34) 이준호, 『조선시대 기후 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 건습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425~436면.

35) 콜레라에는 200종의 균종이 있는데, 그중 사람에게 치명적인 균들은 인간 거주지 근처 오염된 물에서 주로 활동한다. 당연히 청결과 배수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콜레라 발생률이 두 배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 콜레라 균종 및 발생률에 대해서는 존 웨이조, 황상의 외, 앞의 책, 62~68면 참고.

36) 김호,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1, 280면.

37) 조선의 우물에 대해서는 W. R. 칼스,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1999, 37면;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75~97면; 샤를 바 라, 성귀수 역, 『조선기행』, 눈빛, 2001, 82면 참고.

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다. 당시 콜레라는 조선에 처음으로 유입된 신종 병원균이었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권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에서의 희생자는 하층민보다는 적었다.<sup>38)</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19세기 조선의 현실은 전염병, 즉 콜레라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차례 콜레라가 유행했으며, 전 국토에 전염병의 흔적을 새겼던 것을 알 수 있다. 평안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빠리”, 그리고 “마치 불이 들판을 태우듯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며 조선 팔도 전체를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콜레라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고통의 기억과 시체만이 남았다. 콜레라는 남너노소 신분의 고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덮쳤으나, 경제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층보다는 하층 민중들에게 더 큰 피해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겨진 피해와 그로 인한 기억이 잊히기도 전에 그것은 다시, 또다시 19세기 조선 사회를 습격했으며, 그 과정에서 질병이 주는 기억은 계속해서 당대 사람들의 기억에 아로새겨졌다.

辛巳(1821)년에는 콜레라가 만연하여 (...) 조선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지금도 별별 편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요, 약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이든지 초상이 나고 어떤 집에든지 시체가 있고 또 가끔 행길에 송장이 즐비한 경우도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효력이 확실하지는 알 수 없는 약을 찾아냈다고들 생각하였는데, 혹은 제 풀에 세력이 꺾였는지도 모른다. 어떠한 병은 사라지고야 말았다. 그 때부터 1850년까지 다시는 전염병의 창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콜레라가 이 나라에 뿌리를 박다시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는데, 특히 1858년과 그후 4, 5년간이 더욱 심하였다.<sup>39)</sup>

38) 이는 영변 부사로 있으면서 부인이 콜레라에 감염 후 살아남은 정원용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정원용은 부인이 콜레라에 걸려 설사를 시작하자, 하룻밤에만 약을 십여 차례나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이후 “평일 잘 조심한 자들은 많이들 온전할 수 있었다. 小民 가운데 상한 사람이 많고, 중인은 적으며, 사대부는 더욱 적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정원용, 허경진·구지현 역, 앞의 책, 44면~45면 참조.

39)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판사, 1980, 101~102면. 밑줄은 인용자.

샤를르 달레(Ch. Dallet, 1829~1878)가 집필한 『한국천주교회사』에는 프랑스 신부 다블뤼(Daveluy, 1818~1866)가 파리 외방전교회에 보낸 한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에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마주한 19세기 조선의 현실과 당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어떻게 기억하고 반응했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라는 말과 “어떤 집에든지 시체가 있고” “행길에 송장이 즐비”하다는 말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면 지금도 벌벌 떠다.”라는 표현에서 당시 조선 사회가 콜레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를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콜레라가 남긴 기억과 반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하고 강렬한 것이었다.

### III. <변강쇠가>에 형상화된 질병의 기억

진술했듯이 <변강쇠가>에는 19세기 조선 사회에 강력한 공포와 기억을 남긴 “신사년 괴질”이 작품 표면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전염병의 참상을 방불케 하는 죽음의 모습과 시체 처리의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40)</sup> 19세기 후반이라는 작품의 정리 시기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대유행의 현실과 기억 위에 <변강쇠가>를 올려놓고 읽어낼 가능성을 제시해준다.<sup>41)</sup> 따라서 여기서는 <변강쇠가>를 옹녀의 추방, 강쇠의 죽음, 시체의 처리로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2장에서 살펴본 전염병 체험

40) 신동원 역시 ‘변강쇠가’라는 제목보다 ‘가루지기타령’, ‘황부가’, ‘송장가’라는 제목이 많은 것으로부터 <변강쇠가>는 송장을 가로로 저 쳐내는 일, 즉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읽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동원, 앞의 논문, 2004, 328면 참고.

41) 본고의 이러한 시각은 앞서 살펴본 역사적 사실의 단편이 텍스트의 내용과 직결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변강쇠가>와 같은 판소리 사설의 경우 그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만큼, 전대의 서사 전통이나 관념, 그리고 소재 등이 작품 내에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상부살’이나 ‘동티’에 대한 관념과 그에 대한 공포는 19세기의 콜레라 유행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 다만 다른 판소리 사설과는 분명히 다른 <변강쇠가>의 성격과 지향은 이 작품이 향유된 당시의 사회 현실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시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의 역사적 현실 위에서 작품을 읽어낼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 현실과 기억이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변강쇠가>는 옹녀라는 한 여인과 그를 둘러싼 남성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중년(中年)에 맹랑(孟浪)한 일이 있던 것이었다. 평안도(平安道) 월경촌(月景村)에 계집 하나 있으되 (...) 사주(四柱)에 청상살(靑孀煞)이 겹겹이 쌓인 고(故)로 상부(喪夫)를 하여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 먹듯하겠다. 열다섯에 얻은 서방(書房) 첫날밤 잠자리에 급상한(急傷寒)에 죽고, 열여섯에 얻은 서방(書房) 당창병(唐瘡病)에 뒤고, 열일곱에 얻은 서방(書房) 용천병(病)에 펴고, 열여덟에 얻은 서방(書房) 벼락 맞아 식고, 열아홉에 얻은 서방(書房) 천하(天下)에 대적(大賊)으로 포청(捕廳)에 떨어지고, 스무살에 얻은 서방(書房) 비상(砒霜) 먹고 돌아가니, 서방(書房)에 퇴가 나고, 송장 치기 신물난다. (...) 삼십 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姑捨)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總角)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處女)가 집을 이니<sup>42)</sup>

위의 인용문에서 옹녀의 전남편들이 사망한 원인이 나열되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세 남편의 죽음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각 ‘급상한(急傷寒)’은 과한 방사 혹은 성욕 억제로 생긴 병, ‘당창병’은 성병, 그리고 ‘용천병’은 문둥병을 가리킨다. 이후 강쇠까지 네 명의 남편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급상한과 당창병을 성적 타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여러 남편의 죽음을 옹녀라는 여성의 도덕적 부정을 나타내기 위한 설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여섯 남편의 사망과 강쇠의 사망은 사실 모두 그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둥병을 가리키는 용천병으로 인한 셋째 남편의 죽음은 옹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급상한과 당창병 역시 그녀가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 외의 벼락이나 비상, 그리고 포청에서의 죽음 역시 옹녀의 도덕적 타락과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43)</sup> 오히려 옹녀와 결혼한 남편들의 죽음은 당시 하층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

42) <변강쇠가>, 533~534면. 밑줄은 인용자.

43) 오성준, 앞의 논문, 44면 참고.

는 죽음에 해당한다. 특히 강쇠까지 총 일곱 남편의 죽음 절반 이상에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상적 죽음의 이면에 놓여있는 전염병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옹녀와 접촉한 남성들이 연쇄적으로 죽어 나감으로써,<sup>44)</sup> 옹녀가 사는 마을의 삼십 리 안팎에 열다섯 넘은 총각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변강쇠가> 전반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설정은 무엇을 연상시킬 수 있을까? 접촉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 그리고 한 마을을 중심으로 그라운드 제로를 방불케 하는 대량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당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의 참상과 그 기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이 일상화된 19세기 조선사회의 불안과 공포의 기억이 <변강쇠가> 전반부의 설정에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은 작품이 시작 배경으로 제시된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속 죽음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평안도(平安道)”는 공교롭게도 바로 19세기 조선에서 콜레라의 대유행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곳에서는 그 단어가 언어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sup>45)</sup>을 고려했을 때, <변강쇠가>가 시작되는 공간적 배경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어 보인다. 콜레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그들이 겪은 참상이 시작된 공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이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질병의 명칭, 특히 전염병 앞에 스페인독감, 일본뇌염, 중동호흡기증후군, 우한폐렴 등과 같이 전염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이 함께 제시되는 모습은 전염병에 대한 기억과 공간의 문제가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46)</sup>

44) “이삼년(二三年)씩 걸러 가며 상부(喪夫)를 할지라도 소문(所聞)이 흉악(凶惡)할 터인데 한 해에 하나씩 전례(前例)로 처치(處置)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동서방(書房), 그남은 간부(間夫), 애부(愛夫),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젓 한 번 쥘 놈, 눈흘레한 놈, 손 만져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상척자락 얼른 한 놈까지 대고 결단을 내는데, 한 달에 못을 넘겨, 일 년에 동 반 한 동 일곱 못, 윤삭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설그질 제” (<변강쇠가>, 533면)

45) 아노 카렌, 앞의 책, 204면.

46) 역사적으로 평안도와 황해도는 여역(癘疫)으로 일컬어지는 전근대 시기 조선 사회 전염병 유행의 주된 전파지였다. 중국을 통해서 전염병이 전파되었던 역사적 경험은 콜레라뿐만 아니



이후 <변강쇠가>의 중반부에도 죽음은 그 그림자를 강하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강쇠의 죽음과 관련하여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그날 저녁 일 마치고 한참 곤케 자느라니 친만 뜻밖 온 집 안에 장승이 장을 서서 몸 한 번씩 건드리고 말이 없이 나가거늘 강쇠가 깜짝 놀라 말하자니 안나오고 눈 뜨자니 꼭 붙어서 온몸을 결박(結縛)하고 각색(各色)으로 쭈시는데, 제 소견(所見)도 살수 없어 날이 점점 밝아 가매, (...) 불끈 일어 우뚝 서며, 긴장한 두 다리는 유엽전(柳葉箭)을 쏘려는지 비정비팔(非正非八) 빗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왕전(十王殿)에 문지긴지 눈 위에 높이 들고, 경쇠당이 같은 눈은 홍문연(鴻門宴) 번패런지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 풀어 산발하고, 허 빼어 길게 물고, 질동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朱將軍)은 그저 뻗뻗, 목구멍에 숨소리 딸각, 콧구멍에 찬 바람 왜, 생문방(生門方) 안을 하고 장승 죽음 하였구나.<sup>47)</sup>

옹녀와 만나 무위도식하던 강쇠는 옹녀의 성화에 못 이겨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승을 뽑아 뿔감으로 사용하고 만다. 그 결과 전국 팔도에 있는 장승들이 강쇠에게 온갖 병을 도배함으로써 강쇠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기 전 봉사와 의원을 청해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온갖 방법을 써봐도 고칠 수 없었다. “약(藥)은 백(百) 가지요 병(病)은 만(萬) 가지니, 말질(末疾)이라 불치(不治)외다.”<sup>48)</sup>라는 의원의 말은 기존의 의학적 지식을 비롯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강쇠가 겪는 질병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콜레라를 일컫는 말로 ‘괴질(怪疾)’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도무지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반영되어 있다. 질병이 과장된 공포로 연결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원인을 알 수

라 천연두의 유행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호구노정기>에는 중국 강남에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통해 천연두가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호구노정기>의 노정 중 요동, 의주, 위원, 벽동, 평양, 중화, 황주 등의 공간은 모두 평안도에 실재하는 지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평안도”라는 <변강쇠가>의 작중 공간 설정에는 전염병 유행과 관련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기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호구노정기>에 대해서는 이지영, 『무가 路程記와 판소리 노정기의 영향관계에 대한 再論』, 『어문학』제 117집, 한국어문학회, 2012, 164~165면 참고.

47) <변강쇠가>, 561면.

48) <변강쇠가>, 569면.

없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49)</sup> <변강쇠가> 중반부에서 강쇠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당시 콜레라의 미지성(昧知性)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강쇠의 죽음은 매우 고통스럽고 즉각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콜레라의 증상과 그 전파 속도에 대한 기억을 연상케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821년 처음으로 조선에 유행했던 콜레라균은 높은 발생률과 치사율을 보여주었으며, 최초 유행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람도 콜레라균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sup>50)</sup> 그 때문에 이 병에 접촉하면 대개 곧바로 전염되어 곧바로 죽는 경우가 많았으며,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에 걸리면 명치끝이 뒤틀리고 몸의 근육이 경련으로 부르르 떨리며 곱란에 걸린 것처럼 쉴 새 없이 설사를 해댔다. 정체를 알 수 없어 ‘괴질(怪疾)’이라고 불리다가 후에 ‘범이 살점을 뜯어 벤다는 뜻’의 ‘호열자(虎列刺)’로 음역 되었다는 사실은 이 병이 주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강쇠가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의 즉각적인 속도에는 이러한 콜레라의 고통과 즉사 이미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한다.

한편 콜레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질병이 미치는 파괴력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그 질병을 체험하는 인간이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기록들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1821년 조선에서 콜레라가 유행한 기간은 약 2개월이며, 1822년에는 약 5개월이었다. 그 이후의 유행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열흘 간격으로 천명에서 2천 명이 계속해서 죽어 나갔을 경우, 이를 목도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는 거의 공황 상태에 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공황 상태에 달하는 불안과 공포의 기억이 <변강쇠가>에 남아 있는 것이다.

앞서 콜레라의 전염 속도와 관련해서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

49)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제5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34면.

50) 신동원, 위의 논문, 310~311면.

고 “마치 불이 들판을 태우듯이” 빠르게 콜레라가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강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강쇠의 시체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에서도 비슷하다. <변강쇠가>에서는 강쇠의 시체를 치우려 했던 중과 초라니, 그리고 풍각쟁이패 다섯 명(가객, 통소장이, 검무장이, 가얏고 놀던 사람, 북 치던 늙은 총각) 모두 시체를 접하는 순간 바로 죽사한다. 가장 먼저 왔던 중은 강쇠의 염불을 하다가 시체를 보자마자 평소의 모습대로 두 손을 합장하고 죽고,<sup>51)</sup>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에 험악하게 죽었던 송장들을 다 쳤다며 자신 있어 하던 초라니도 고사(告祀) 소리를 하다가 죽고 만다.<sup>52)</sup> 이후에 등장한 풍각쟁이패 다섯 명(가객, 통소장이, 검무장이, 가얏고 놀던 사람, 북 치던 늙은 총각) 역시 음악을 통해 강쇠의 원혼을 달래고 시체를 처리하고자 했으나 시체를 보고 모두 바로 죽임을 당한다.<sup>53)</sup>

흥미로운 지점은 강쇠를 비롯해 고통스럽고 즉각적인 죽음을 당하는 존재들이 모두 하층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공동체 경계 안의 안정된 삶에 발붙이지 못하고 경계 밖에서 표류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죽음의 양상에는 어떤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염병은 인간의 면역력, 즉 영양 상태 및 그에 따른 면역 체계에 따라 발병 확률이나 극복 확률이 달라진다. 콜레라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19세기 조선 사회를 강타했을 당시, 경제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층보다는 하층 민중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변강쇠가>에서 죽음을 맞는 대상들이 거의 모두 하층에 속해있다는 사실에는 그러한 전염병 체험의 씁쓸한 현실, 즉 ‘가난한 자의

51) “속으로 진언(眞言)치려 방문(房門) 열고 드러서서 송장을 얻는 보고 고지를 꺾 숙이며 중의 버릇 호노라고 두 손을 합장(合掌)하고 문안(問安) 죽업으로 요만하고 열반(涅槃)희제.” (<변강쇠가>, 579면)

52)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 통에 험악(險惡)하게 죽은 송장 내 손으로 다 쳤으니, 그 같은 선 송장은 외손의 아들이니 샅을 먼저 결단(決斷)하오. 패. 당 동 당. (….) 풀잎 같은 새된 목이 고비 넘길 수가 없고, 날쌔게 놀던 몸집 삼동이 뒤틀리고, 한출침배(汗出沾背) 가뿐 숨이 어깨춤에 턱을 채여, 한 다리는 오곰 죽여 턱 밑에 장고(長鼓) 엮고, 망종(亡終) 쓰는 한 마디 목 하염없이 구성이라. 뒤마치 쫓치며 고사(告祀) 죽음 돌아가니“ (<변강쇠가>, 583~585면)

53) “방(房)에서 찬 바람이 스르르 일어나며 쌍창문(雙窓門)이 절로 열려 온몸이 으스스하며 독(毒)한 내가 꼬 찌르니, 눈뜬 식구들은 송장을 먼저 보고 제 맛으로 다 죽는다.” (<변강쇠가>, 591면)

역병’ 혹은 ‘가난한 자의 비극’이라는 당시의 기억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늘 그렇듯이 죽음에는 시체라는 결과가 남는다. 그리고 <변강쇠가>의 후반부는 강쇠의 시체를 비롯한 여러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땀득이가 각설이패 세 사람과 함께 여덟 구의 시체를 등에 지고 이동하는 도중에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시신과 함께 땅에 붙고,<sup>54)</sup> 이를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마저 시체에 붙어버린 상황은 작품의 후반부 서사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시체의 처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 매어놓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질병의 속성과 거거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연상시키기는 부분이 있다.

특히 시체에 붙어버린 사람들과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일대가 장터 같이 되어버린 작중 공간<sup>55)</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난장과도 같이 묘사되고 있는 그곳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산 자와 시체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시체가 나뉘고 썩어 있는데 이를 치울 수조차 없었던 19세기의 혼한 풍경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살 풍경(殺風景)”이 되어버리고, 것처럼 비일상적 상황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19세기 조선사회의 시·공간에 대한 기억이 <변강쇠가>의 후반부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이다.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방법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정 역시 당시 현실의 무기력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땀득이 분(憤)을 내어 사면(四面)을 둘러보니 곳곳한 큰 소나무 나란히 두 주(柱) 서서 한 가운데 빈 틈이 사람 하나 가겠거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르르 달음박질 솔뜸으로 쑥 나가니 깊어진 송장 짐이 우두둑 삼동 나서 위 아래 두 도막은 땅에 절쩍 떨어지고 가운데 한 도막은 북통같이 등에 붙어 암만해도 뗄 수 없다. 요간폭포

54) “한참을 지고 가니 무겁기도 하거니와 길가에 있는 언덕 쉼 자리 매우 좋아, 네 높이 함께 쉬어 짐머리 서로 대어 일자(一字)로 부리고 어깨를 빼려 하니 그만 땅하고 충창하고 짐꾼하고 삼물조합(三物調合) 짝 되어서 다시 변통(變通) 없었구나.” (<변강쇠가>, 601면)

55)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굿 보노라 아니 가고, 먼뎛 마을, 근처(近處) 마을 구경(求景)하자 모여드니 그리 저리 모인 사람 전주장(全州場)이 풍문하다.” (<변강쇠가>, 613면)

쾌장천(遙看瀑布掛長天) 좋은 절벽(絕壁) 찾아가서 등을 갈기로 드는데 같이질 사설(辭說)이 들을 만하여<sup>56)</sup>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나란히 서 있는 소나무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써 시체는 동강 나고, 끝까지 붙어있는 시체 일부는 절벽에 갈려 사라진다. 시체가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시체를 동강 내어 갈아 없애버리는 <변강쇠가>의 그로테스크한 결말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당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남은 것은 시체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풍경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변강쇠가> 후반부에서 시체가 땅과 사람들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이처럼 당시 전염병이 가져온 극단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기억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57)</sup>

그런 점에서 시체를 갈아 없애는 결말은 시체에 대한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거리와 마을 곳곳에 놓인 수많은 시체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들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쌓인 시체의 썩은 기운”<sup>58)</sup>이 온 마을과 거리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시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병의 참상을 상기시키며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시체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과 도저히 시체를 처리할 수 없었던 현실, 이와 같은 비극적 괴리 가운데 생겨난 시체에 대한 정서와 인식의 극단적인 반응이 <변강쇠가>에서 시체를 동강 내고 갈아 없애는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이처럼 질병에 대한 기억과

56) <변강쇠가>, 619면.

57) 이주영, 앞의 논문, 57면 참조.

58)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1821년 『祭香積山神文』을 통해 1821년 당시 콜레라가 창궐하며 남긴 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앞부분에서 “열 사람이 앓아 누우면 산 사람은 겨우 둘 셋뿐, 쌓인 시체의 썩은 기운이 온 마을에 피어오르네. (十人病臥, 生僅二三. 積屍氣熏, 蒸于里閭.)”라고 하며 당시 마을 곳곳에 놓인 시체가 악취를 뿜어내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6, 『祭香積山神文』 참조.

59) 이주영은 이에 대해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아닌 내면적이고 은밀한 감정”이 <변강쇠가>에서 “시체에 대한 정서의 한 극단”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정상적 사고방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변강쇠가>에서 떼죽음과 시체 부착 등의 소재와 불균형한 서사구조로 반영되었다는 지적은 본고가 <변강쇠가>의 후반부를 읽어내는 데 시사한 바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영, 앞의 논문, 57~58면 참조.

반응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전염병에 대한 반응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IV.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은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현실 모방적 표현으로서의 문학의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경험, 특히 전염병과 같은 강렬한 체험은 기억을 남기고, 문학은 그 기억을 나름의 방식으로 형상화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가능성을 마련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넘어선 충격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 질병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체험과 기억이 유발하는 정서나 반응을 포착하고 거기에 어떤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변강쇠가> 전반부에서 접촉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 그리고 한 마을을 중심으로 그라운드 체로를 방불케 하는 대량의 죽음이라는 설정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참상과 그 기억이 반영된 것으로 살핀 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작품 내 “황·평양도(黃·平兩道)”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다.

황·평양도(黃·平兩道) 공론(公論)하되, “이 년을 두었다는 우리 두 도내(道內)에 쫓 단 놈 다시없고, 여인국(女人國) 될 터이니 쫓을 밖에 수가 없다.” 양도(兩道)가 합세하여 궤가(毀家)하여 쫓아 내니<sup>60)</sup>

그들은 “공론(公論)”의 과정을 거쳐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옹녀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성이 작동될 여지가 전혀 없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60) <변강쇠가>, 534면. 밑줄은 인용자.

웅녀를 처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국 양도의 사람들은 “합세(合勢)하여” 그녀를 공동체 밖으로 축출한다.<sup>61)</sup> 여기서 우리는 전염병의 참상을 연상시키는 접촉으로 인한 대규모 죽음의 원인으로 웅녀가 지목되는 “공론”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변강쇠가>에서 선택되고 있는 것은 ‘포용과 연대의 논리’가 아니다. ‘우리’와 ‘그들’ 간의 구분은 강화되며, 그 경계에 놓인 ‘담장’<sup>62)</sup>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진다.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전염병의 상황, 그리고 그로부터 유발된 불안과 공포의 정서가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작동시키고 있는 현상이 <변강쇠가>의 전반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죄로 덮여 씌우기가 쉬워 보이는 대상을 해로운 타자로 만들어내고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타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sup>63)</sup> 다시 말해 위기의 상황마다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변강쇠가> 전반부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장승 혼령(魂靈) 급히 가서 두 군데 전갈하니 공원 유사 급히 와서 의례(依例) 인사한 연후에 함양 장승 발괄 내력(來歷) 대방이 발론(發論)하니 공원 유사 여짜오되, “우리 장승 생긴 후로 처음 난 변괴(變怪)오니 삼소임(三所任)만 모여 앉아 중용 작처(從容酌處) 못 할지라, **팔도 동관 다 청하여 공론 처치(處置)하옵시다.**”(…) “남해 동관 하는 말씀 불변불요(不煩不擾) 장히 중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쇠놈에 저리 많은 식구들이 정처없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축이 들고 빠진 데는 튼 날 터니 머리에서 두 팔까지 전라, 경상 차지하고, 겨드랑서 불기까지 황해, 평안 차지하고, 향문에서 두팔까지 강원, 함경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복(內腹)일랑 경기,

61) 오성준, 앞의 논문, 46면 참조.

62) 정병설은 한국에서의 차별과 적대의 연원을 전근대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화해와 조화의 인간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운몽>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적대, 혐오의 시각을 검토하고 이를 ‘인간담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 타자로 인식된 대상을 향해 폭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그들’의 경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제시한 ‘담장’ 개념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각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크다. 정병설, 『조선시대 차별과 적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구운몽』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50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참조.

63) 이에 대해서는 르네 지라르,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19면;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12, 28~29면 참고.

충청 차지하여, 팔만 사천 털구멍 한 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밭 바르라.<sup>64)</sup>

장승을 땀감으로 사용한 강쇠를 징치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장승들이 모여 강쇠를 징치할 방법을 모색하는 대목에서도 역시 “공론”의 과정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효수(梟首)도 화형(火刑)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고, 결국 강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병 도배가 결정된다. 이후 강쇠에 대한 폭력은 장승 집단 전체에 의해 온몸에 온갖 병을 도배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며, 결국 강쇠는 엄청난 고통 속에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장승 집단을 향촌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로 볼 수 있다면,<sup>65)</sup> 공동체 경계 밖에서 유랑하던 존재인 강쇠에 대한 이들의 공론과 징치에는 당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랑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적대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작품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전혀 힘을 잃지 않는다.

강쇠가 겪는 고통과 죽음에 당시 조선 사회를 강타했던 콜레라에 대한 기억이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했을 때, <변강쇠가>에서 옹녀와 강쇠에게 드리워지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는 이 작품이 향유되었던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의 책임을 불온한 존재로 여겨지는 타자들에게 돌리려는 뿌리 깊은 반응이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단순히 작품 속에 문학적으로만 표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이를테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특히 전염병 등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의 발생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했던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다.

먼저 이 작품에 형상화된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유행 시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 미지의 질병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

누군가 이르기를 “그 발병 원인은 애당초 南蠻에서 백련교를 익히는 자들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물에 독약을 살포하고 오이밭에 독약을 뿌리는데, 사람들

64) <변강쇠가>, 555~559면. 밑줄은 인용자.

65) 최동현, 앞의 논문, 118~119면 참고.



이 그 오이를 먹거나 샘물을 마시면 즉시 사망하여 백 명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sup>66)</sup>

당시 조선에서 평안도와 황해도에 이어 도성에서까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발병 원인으로 중국의 백련교도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사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했던 ‘백련교도의 난(1796~1803)’에 대한 기억이 이 시기까지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백련교도들은 우물과 오이밭에 독약을 뿌리는 존재로 이야기되고, 이로 인해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타자화되고 있다. 비록 누군가의 말을 빌린 유언비어의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심리가 타자로 지목되기 쉬운 존재들에게 배타적으로 투사되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sup>67)</sup>

이러한 논리는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물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독을 풀어서 콜레라가 생기는 것이므로 천주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던 사례<sup>68)</sup>에서도 확인된다. 이보다 훨씬 전에 중세 시대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대역병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댄 결과, 어떤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 병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고 학살당하기도 했다.<sup>69)</sup>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주장이나 유대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 병을 퍼뜨렸다는 주장 모두 백련교도가 콜레라의 원인으로 지명되

66) “或以爲 ‘病根所自，始於南蠻之習白蓮教者，遍行天下，撒毒於汲井，撥藥於瓜田，人之喫瓜而飲井者，舉皆立刻就死，百無一生。(후략)” 『순조실록』, 순조 21년(1821년) 8월 17일.

67)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콜레라 유행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을 당시 유럽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에서 확인된다. 당시 검역으로 인한 여행과 교역 통제 상황은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빈민들의 정서가 사나워짐에 따라 저항과 폭동이 뒤를 이었다. 부자들의 더 높은 질병 저항력은 처음에는 불공평, 다음에는 박해, 마지막에는 음모의 증거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해 콜레라가 질병이 아니라 부자들이 퍼뜨린 독이며, 부자들이 문제가 있는 빈민들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구체적으로 1831년 여름 콜레라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헝가리에서는 자신들이 독에 당했다고 생각한 농민들이 성을 포위하고 의사와 장교와 귀족들을 죽였고, 프리시아에서는 의사들이 콜레라 사망자당 일정량의 돈을 왕에게서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노 카렌, 앞의 책, 207면 참고.

68) 정민성, 『우리 의학의 역사』, 학민사, 1990, 219면.

69) 황상익,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한울림, 1998, 128면.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언비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70)</sup>

요컨대, 어느 곳이나 죽음이 존재하고 시체가 범람하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현실로부터 기인한 불안과 공포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담장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콜레라 대유행에 직면했던 조선 사회 역시 위기 상황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콜레라와 같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은 삶을 지탱하던 이전까지의 상식을 무너뜨리며, 포용과 연대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이 아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품 전반에서 확인되는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는 콜레라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빚어낸 인간성의 비극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V. 결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는 전염병의 비가 시적이고 비인간적인 특성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고 있다. 전염병의 발생 원인 및 감염경로,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거의 알 수 없었던 19세기 조선 사람들에게 1821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콜레라는 상상할 수

70)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 알파다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한 누리꾼이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이 즉각적인 비판이 이어진 결과 소문은 사그라들었지만, 오늘날에도 재해의 상황에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가족과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불령선인(不逞鮮人)’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거나 우물에 독을 풀고 폭탄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을 때, 거짓 소문을 믿은 ‘평범한’ 일본인들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학살했던 사례는 뿌리 깊은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낳은 비극적 폭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가토 나오키, 서울리다리티 역,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갈무리, 2015 참고.

없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음이 틀림없다. 이에 본고는 전염병 체험의 기억이 형상화된 작품으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에 주목하여, 19세기 조선에 유행했던 콜레라의 실상 위에서 <변강쇠가>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의 차원에서 19세기 콜레라 대유행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전염병의 시작과 전파 속도 및 범위, 증상과 대상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전염병 체험이 집단의 기억 속에 각인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평안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19세기 조선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수많은 시체를 남겼던 사실, 그리고 충분한 면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상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었던 하층 민중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방불케 하는 공포와 불안의 기억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19세기 조선의 전염병 체험의 현실과 기억이 <변강쇠가>에 형상화된 흔적을 살펴보았다. 먼저 <변강쇠가>의 전반부에서는 접촉으로 인한 죽음, 대량의 죽음, 평안도라는 시작 공간 설정을 통해 콜레라로 대표되는 전염병의 기억이 형상화된 모습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중반부에서는 강쇠의 죽음을 둘러싸고 전염병이 남긴 고통의 증상과 전파 속도와 관련된 기억, 그리고 전염병의 대상 차원에서 ‘가난한 자의 역병’이라는 씁쓸한 현실에 대한 기억이 형상화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강쇠가>의 후반부에서는 시체가 나뒹굴고 쌓여 있는데 이를 치울 수조차 없었던 19세기의 혼란 풍경이 장터와 같이 묘사되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땅과 사람에게 붙어버린 시체의 모습, 그리고 이를 갈아 없애는 그로테스크한 결말에 투영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후 4장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일상을 넘어선 충격이 유발한 정서나 반응이 <변강쇠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특별히 공동체 경계 안에 있는 존재들이 공론을 통해 옹녀와 강쇠를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해 타자화시키고 처리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거기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담장이 더욱 높고 견고해지는 모습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반응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변강쇠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처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등장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콜레라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빚어낸 인간성의 비극을 <변강쇠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의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변강쇠가>는 우리에게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대유행의 기억과 반응을 조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세기의 콜레라와 21세기의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오늘날의 반응이 보여주는 ‘인간성의 수준’은 2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아졌는가? 여전히 차별과 적대,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대부분 위기 요인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에 의해 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변강쇠가>가 던지는 위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변강쇠가>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콜레라 대유행이 남긴 기억과 이에 대한 반응을 작품 전체에서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기억 위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서 ‘질병 문학’을 논할 때,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염병 서사’로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純祖).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6, 『祭香積山神文』.

신재효, 『변강쇠歌(星斗本B)』,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권8, 보성문화사, 1978.

### 2. 단행본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 한국기후의 문화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김 호,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1.

심노승, 안대회 · 김보성 역, 『자저실기(自著實記) -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의 일상』, 휴머니스트, 2014.

이병기, 『國文學概論』, 일지사, 196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정민성, 『우리 의약의 역사』, 학민사, 1990.

정약용, 『국역 목민심서』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정원용, 허경진 · 구지현 역, 『국역 경산일록』 2, 보고서, 2009.

황상익,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한울림, 1998.

가토 나오키, 서울리다리티 역,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갈무리, 2015.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12.

르네 지라르,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社, 1963

샤를 바 라, 성귀수 역, 『조선기행』, 눈빛, 2001.

샤를르 달레,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판사, 1980.

아노 카렌, 권복규 역,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북스, 2001.

A. 아스만,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윌리엄 H. 맥닐,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G. W. 길모어, 신복룡 역주,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W. R. 칼스,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1999.

존 웨이조, 황상익 외 역,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나』, 매디치미디어, 2012.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디스,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 3. 논문

- 강상순, 「조선시대의 역병 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 제46집, 일본연구소, 2015, 69~97면.
- 강진옥, 「〈변강쇠가〉 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3집, 이화어문학회, 1993, 197~217면.
- 권복규, 「朝鮮前期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한국사론』 제4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53~90면.
- 김정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콜레라 유행의 특성」, 『韓國疫學會誌』 제13권 제2호, 한국역학회, 1991, 105~111면.
- 김종철, 「19세기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회, 1986, 90~122면.
- 박경신, 「무속제의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170~200면.
- 서종문, 「〈변강쇠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989, 53~86면.
- \_\_\_\_\_,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제6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307~332면(『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에 재수록).
- 오성준,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규근, 「조선 후기 질병사 연구: 조선왕조실록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6집, 국사편찬위원회, 2001, 1~42면.
- 이 욱, 「전쟁보다 무서운 돌림병」, 『내일을 여는 역사』 제7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69~72면.
-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제58집, 민족어문학회, 2008, 5~33면.
- \_\_\_\_\_, 「19세기 疫病 체험의 문학적 형상」, 『동악어문학』 제55집, 동악어문학회, 2010, 39~68면.
- 이준호, 「조선시대 기후 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 건습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425~436면.
- 이지영, 「무가 路程記와 판소리 노정기의 영향관계에 대한 再論」, 『어문학』 제117집,

- 한국어문학회, 2012, 153~177면.
- 정병설, 『조선시대 차별과 적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구운몽』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50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51~72면.
- 정병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181~192면.
- 정출현, 『판소리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181~205면.
- 조 광,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83~235면
-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61집, 국어문학회, 2016, 103~130면.
-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제5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15~344면.

## Memories and reaction to disease in Pansori

- Focusing on the 19th century cholera epidemic and *Byeongangsoi-ga* -

Oh, Seong-j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mories and reaction to the disease in Pansori *Byeongangsoi-ga* based on the facts of cholera pandemic in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First, through the records related to the cholera pandemic in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we looked at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ectious disease experience imprinted in the memory of the group, focusing on the starting point, the speed and spread range, symptoms and objects. It was confirmed that cholera, which started in Pyeongando, boasted a tremendous speed and left great pain and numerous corpses in the entire 19th century Joseon societ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class people who were in a difficult economic condition were damaged more than the upper class. And it can be seen that this experience left the memories of fear and anxiety reminiscent of PTSD to the Joseon people at that time.

Based on this, This study looked at the traces of the memories of the infectious disease experience in *Byeongangsoi-ga*. In the first half of *Byeongangsoi-ga*, the memory of the infectious disease was confirmed through the setting of death due to contact, mass death, and the starting space(Pyeongando). In the middle of the work, it can be seen that memories related to the symptoms of the pain left by the contagious disease, the rapid spreading speed, and bitter reality of “the plague of the poor” are the main elements of the form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work,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on scenery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body was flooded, is projected into the space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coexist, the appearance of the corpse stuck to the ground and people, and the ending of grinding away teeth.

After that, I tried to understand how the reaction to the shock of the infectious disease was revealed in *Byeongangsoi-ga*.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by which people in the boundaries of the community otherize Ongnyeo



and Gangsoi through public opinion.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fence between 'we' and 'them' becoming taller and more soli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gic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as leading the way in response to the epidemic.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cases in which the logic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ppears in, *Byeongangsoi-ga* shows the tragedy of humanity caused by the unprecedented disease of cholera in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In a similar crisis situation of cholera in the 19th century and COVID-19 in the 21st century, How much has the 'level of humanity'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response to the disease improved compared to 200 years ago? Are the logics of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hatred and exclusion still in operation? The above questions posed by *Byeongangsoi-ga* have great implications even today. As such, *Byeongangsoi-ga* literately well portrays the memories of the cholera pandemic in the 19th century Joseon society and their reactions to it, and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 problems based on the memory of the epidemic. In this regard, when discussing "disease literature" in Korean literature history, Pansori *Byeongangsoi-ga* can be "epidemic narrative" representing the 19th century.

keywords: epidemic, 19th century, cholera, memory, anxiety, fear, *Byeongangsoi-ga*, discrimination, exclusion, fence, disease literature, epidemic narrative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